

##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 등장인물 소개:

주인공(손대리): 36살. 네 살, 여섯 살의 두 아이를 둔 가장. 성실하고 꼼꼼하며 다소 고지식한 성격의 소유자. 일처리를 책임감있게 잘하여 주변의 신뢰를 얻고 있으나 경기 불황으로 갑자기 해고된 후, 사업을 시작한다.

아내: 34살. 남편을 잘 내조하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 남편이 실업자가 될 때도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한결같이 남편을 존중하고 따른다.

주무관: 강직하고 청렴한 성격의 소유자. 공정하고 사리분별을 잘하여 현명하게 일처리를 한다.

거래처 사장: 주인공이 이전 회사를 다닐 때, 주인공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처리 능력을 신뢰하여 주인공이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주인공에게 호의를 베풀어 일을 맡긴다.

친구: 주인공이 개인 사업을 시작하자 같이 일하게 된 동료이자 친구이다. 스스로 세상 물정에 밝다고 여기며 주인공에게 세상적인 처세술을 알려 준다.

##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 시놉시스:

주인공 손대리는 8년간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갑자기 정리 해고가 되고 만다. 반 년 가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손대리는 마침내 개인 사업을하기로 결심하고 조그만 사무실을 차린다. 문제는 사업허가서. 혹시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여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꼼꼼히 준비한다. 마지막 서류 하나가 외국에서 도착해야 하는 것이라서 도착할 때까지 접수를 미루던 중, 개업식을 하게 되고 축하하러 들른 이전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중요하고 큰 첫 일감을 맡게 된다.

그러나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계약 날짜 때문에 사업 허가가 예상보다 늦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사업 허가를 빨리 진행시키려면 급행료를 내야한다고 부추기는 친구의 말에 주인공은 급기야 사업 허가 처리업무를 맡은 주무관을 찾아가 식사 대접을 제안하는데, 냉정하게 거절하는 주무관의 반응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 후 스스로 처세술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자책하고 고민하던 주인공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주무관을 다시 만나 어쩔 결에 급행료를 주고 만다. 그러나 여전히 보름이 훨씬 지나도 사업허가는 나지 않고, 뒤늦게 급행료를 받은 주무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다. 거래처 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취소해 버리고 주인공은 후회와 절망감을 느끼던 중 악몽에서 깨어난다. 주무관에게 급행료를 주고도 계약이 취소된 것은 다행히 그저 악몽이었던 것이다.

3주 뒤 사업 허가가 났다는 반가운 문자가 오고, 주무관을 만난 주인공은 차를 마시며 그동안 서로의 오해를 푼다. 민원 신청자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급행료라는 주무관의 말에 주인공은 진심으로 신뢰를 느낀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며 급행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주인공 독백: 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다닌 회사가 경기 불황으로 휘청거렸다.

(사무실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전화 통화를 하는 주인공. 잠시 뒤 체념한 듯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주변 동료들도 어두운 표정으로 한 숨 쉬며 서류를 보거나 문을 열고 나가는 무거운 회사 분위기)

주인공 독백: 정리하고 소문이 사내에 돌았지만 설마 내가 정리하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 명단에 들고 말았다.

(주인공은 게시판에 적힌 해고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사무실에서 개인 짐을 챙겨 낙담한 표정으로 회사에서 나가는 주인공, 동료 한 두 명이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주인공 독백: 8년간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쉬고도 싶었지만 집에 있는 두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니 하루도 쉴 수 없었다.

(한참 뛰어노는 두 아이들과 집안 일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뒤돌아서 착잡한 표정을 짓는 주인공)

주인공 독백: 경기가 어렵다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고 다른 분야에도 도전하여 여기 저기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았지만 반년 가까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저녁 형광등 아래 이력서를 열심히 쓰고, 회사에서 열심히 면접을 보는 주인공의 모습, 그러나 결국 낙담하고 지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길거리를 걷고 있다.)

주방 식탁에서 주인공(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 있다.

주인공: (무언가 결심한 듯 아내를 바라보며) 여보, 아무래도 취직은 무리인 것 같아. 많이 생각해 봤는데...작게라도 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내: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게) 당신 마음 고생은 아는데...사업이 어디 쉬워야 말이죠... 사람들 말이 요즘은 직장생활이 전쟁터면 사업은 지옥이라던데...

주인공: (애써 괜찮은 표정을 지으며 아내를 달래듯이) 처음엔 어렵겠지만..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도 있고 하니 일감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사업만 안정되면 월급쟁이보다야 낫겠지...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아내.)

주인공 독백: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나는 창고 겸 사무실로 쓸 장소를 구했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아내와 직접 사무실을 꾸몄다.

(아내와 주인공이 내부에 페인트를 칠하고 사무실 집기류를 중고로 들여놓는 장면)

주인공: (호뭇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이렇게 놓고 보니 꽤 쓸만하네.

아내: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그러네요 사장님. 저 여기 취직 좀 시켜주시죠~~ 전 서류통과, 면접통과 맞죠?

주인공: (안경을 올리며 곤란한 척하는 표정으로 ) 아~그건 곤란합니다. 저희 회사는 워낙 청렴한 회사라 그런 인사 청탁 사절입니다.

아내: 뭐예요? (뿔난 척 주인공의 등을 때린다.)

주인공: (아픈 척하며 마음속으로) 정말 당신하고 아이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주인공 독백: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사업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했다. 사업허가가 필요한 직종인지라 만에 하나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봐 해당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러 정보들을 참조해서 서류도 꼼꼼히 준비했다. 마지막 서류 하나가 외국에서 도착해야 하는 것이라서 도착할 때까지 접수를 미루고 있었다.

(주인공이 인터넷을 열심히 들여다 보며 펜으로 기록하며 체크하는 장면, 서류뭉치를 정리하는 장면.)

(이어지는 개업식 장면: 이전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이 와서 막걸리를 마시며 축하한다. 서로 웃으며 활기에 넘치는 분위기. 이때 거래처 사장이 주인공에게 다가온다.)

거래처 사장: 어이구 손대리, 개업 축하하네. 아니지. 이제부터 손사장인가? 손사장 앞으로 잘 부탁하네.

주인공: 아휴, 아닙니다. 사장님, 부탁은 오히려 제가 드려야죠. 바쁘실텐데 잊지 않고 들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거래처 사장: 아니야, 아니야. 그동안 같이한 세월이 몇 년인데, 당연히 와봐야지. 솔직히 처음엔 자네 일처리가 워낙 꼼꼼해서 답답하고 속터질 때도 있었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네방식이 항상 문제나 사고 없이 제대로 처리돼서 만족스러웠거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 첫 고객이 되겠네.

주인공: (환한 얼굴로) 아~정말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기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감사 표시를 한다.)

거래처 사장: 우리 회사가 베트남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 건 자네도 알지? 다음번 베트남물량을 자네회사에 맡길까 하는데 잘 할 수 있겠나?

주인공: (눈을 크게 뜨며 반색하며) 베트남이면...물량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의 손을 맞잡는다.)

거래처 사장: 손사장을 믿고 맡기는 거니 최선을 다해 주게.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회사가 잘 서는데 도움이 될 걸세.

주인공: (기쁘고 힘찬 목소리로) 그럼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연신 굽히며 감사 의 인사를 한다.)

거래처 사장: (웃으며) 허허.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계약날짜만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생각이네.

주인공: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열심히 해서 계약날짜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독백: 며칠 후,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했다. 이제 구청에 준비한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허가를 받아야했다. 걱정은 사업자 허가 서류를 받는 기간이었다.

(주인공은 함께 일하게 된 친구와 나란히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주인공: 사업자 허가 서류 받는데 얼마나 걸릴까?

친구: (생각하는 표정으로) 보통은 접수하고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

주인공: (깜짝 놀라며) 한 달?

친구: 때에 따라서는 아마 두 달이 넘게도 걸리지...

주인공: (당황하고 놀라며) 그건 안되는데...지금 받아놓은 거래처의 일감이 있어서 한 달을 넘기면 큰일이야.

친구: 음~그럴 땐 다들 급행료를 쓰던데..

주인공: 급행료?

친구: 자네도 알잖아. 급행료를 좀 쓰면 막히는 길도 뚫리는 법이지. 힘들게 돌아갈 것 뭐 있나?

주인공: 그렇지만 요새는 그런 것 통하지 않는다던데..

친구: 순진한 소리는~세상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나? 은근슬쩍 쥐어줘 보면 일사천리지. 달리 급행료? 좀 부족한 서류가 있어도 눈감아 준다니까.

(다소 한참을 망설이는 표정의 주인공. 그러다 무언가 결심한 듯.)

주인공: (속으로) 그래, 사업 초기의 중요한 거래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급행료를 지불해 보는 거야.

(서류 접수처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주인공이 담당자에게 인사를 한다. 그리고 다음날, 주인공은 백화점에 들러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다.)

주인공: (속으로) 나 참~결혼해서 아내한테도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꼭 써야하나...하는 수 없지. 다들 필요하다고 하니...순진한 마음 하나만으로 사업을 잘해 보려는 게 어찌면 터무니없는 바램인지도...

(상품권을 지갑에 넣고 다시 구청으로 가는 주인공. 담당자에게 찾아가 깍듯이 인사를 한다.)

담당자: (의아한 얼굴로) 무슨 일이십니까?

주인공: (다소 쭈뼛거리며 조용한 목소리로) 저...오늘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담당자: (일순 얼굴이 굳어지며 다소 찌뿌린 표정으로) 저희는 식사 대접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주인공: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아...네...안녕히 계십시오..

(주인공은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서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킨다.)

주인공: (속으로 괴로워하며) 내가 너무 어설피게 식사대접을 이야기한 건가? 주무관이 일부러 서류를 보류시켜서 허가 안내주면 어찌지? 주무관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까는 오해였다고 해야 하나?

(괴롭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며 이런 저런 상황을 상상해 보는 주인공)

# 상상1

주무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사람 급행료 처음 써보나? 미숙하기는...티 만나게 처리해야지. 뇌물 받는다고 광고할 일 있나? 누굴 잡으려고.

## # 상상2

주무관: (교활한 표정으로 주인공의 서류를 한쪽 구석에 밀어 넣으며) 적당히 시간 끌면 다음번엔 제대로 하겠지.

상상3: (정직한 인상의 주무관. 그러나 한심하다는 듯이 주인공의 서류를 훑어본다.)  
주무관: (어이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옆에 앉은 동료직원에게) 이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일세. 사업 시작부터 웃돈 주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니.

동료직원: 참 나. 우리를 뭘로 보고. 이 사람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면 분명 부정한 수단으로 사업을 할게 뻔해. 이런 사람에게는 사업허가를 절대 쉽게 내주면 안된다구.

(이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주무관.)

(이러한 상상이 괴로운 주인공은 일어서서 머리를 감싸며 혼든다.)

(주무관이 퇴근할 때까지 서성이며 기다리는 주인공. 늦은 저녁이라 주변은 어둡다. 주무관이 탄 승용차가 주인공 앞에서 멈추고 차문이 열린다.)

주인공: (고개를 숙이며 차 속에 앉아있는 주무관을 향해) 제가 아까는 처음이라 감사한 마음에 결례를 했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주무관: (말없이 냉정한 표정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며) 무슨 오해 말씀하십니까?

주인공: (당황해 어쩔줄 몰라 버벅거리며) 그 그러게 말입니다.

주무관: (피식 웃으며) 이런 일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주인공: (시선을 떨구며) 네. 저도 처음이라 어찌 해야 할지...

주무관: (사뭇 부드러운 목소리로)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이죠. 일도 끝났고 하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도와드리죠.

주인공: (약간 어리둥절하며) 네? 아...네. 네.



(사색이 된 채 수화기를 떨어뜨린다.)

친구: (놀라며) 이봐! 자네, 무슨 일이야?

주인공: (망연자실하여 힘없이) 그...주무관이...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이 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래처 사장.)

거래처 사장: 손사장. 자네답지 않게 도대체 왜 일 진행이 이렇게 느린 건가? 일을 하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주인공: (힘없이 일어서며) 정말...면목이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면목이 없다니...그게 무슨 말인가?

주인공: (주저하며) 그게...제가 아직 사업허가서를 받지 못해서...

거래처 사장: 사업허가서야 구청 가서 받으면 될 일이 아닌가?

주인공: 네...그런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고개를 떨군다.)

거래처 사장: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잘못 되다니? 자네가 잘못할 일이 뭐가 있나?

주인공: 제가 한 달 안에 사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거래처 사장: 그만...? 뭐라는 건가?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해보게.

주인공: (힘없는 목소리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관에게 급행료를 주었습니다..

거래처 사장: (기가 막히다는 듯)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매우 실망한 표정으로) 세상 사람 다 그래도 자네만은 정직하고 소신있게 일하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주인공: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래처 사장: 됐다. 설사 사업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자네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네.

(거래처 사장은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가버린다. 망연자실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주인공.)

(이 때 잠에서 깨어나는 주인공. 침대에서 일어나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식은 땀을 흘린다. 이 모든 것이 꿈을 알고 안심하는 주인공.)

(장면이 바뀌어 사무실에 맥없이 앉아 있는 주인공. 여전히 고민스런 표정으로 시름하며 왔다갔다 안절부절 하지 못한다. 속만 태우며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싼다.)

주인공: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주인공 독백: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애를 태우던 3주가 지나갔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온다. 황급히 문자를 확인하는 주인공.)

핸드폰 내용: 사업자 허가가 나왔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떨 듯이 기뻐하면서도 어리둥절해 하는 주인공.)

주인공: (속으로 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보통 한 달은 걸린다는데 어떻게 3주 만에 나왔지? 주무관에게 실수를 했는데...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된거지?

(구청 서류 접수처에서 주무관을 다시 만나는 주인공.)

주무관: (그 때와는 사뭇 다른 부드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오셨으니 차 한 잔 하고 가시죠.

주인공: (손사래 치며) 아 아닙니다..제가 사드려야죠.

주무관: (미소 띤 얼굴로) 제가 사겠습니다. 자 가시죠. (손을 내밀어 안내를 한다)

(구청 내 카페테리아에서 앉아 있는 주무관과 주인공.)

주무관: 저번에 저녁식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실 때 사장님 눈빛이 많이 떨리시더군요. 사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망설이는...그런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청하신 서류를 오히려 더욱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모든 서류가 완벽하더군요. 신청서도 잘 쓰셔서 놀랐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제대로 될 일인데 왜 그러셨는지 궁금하더군요.

주인공: (머쓱한 듯) 저...그게 주변에서 하도 급행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엔 필요하다고 (겸연쩍게 머리를 머리 뒤를 만지며 웃는다.)

주무관: 구비 서류 완벽히 갖추시고, 신청서 오류 없이 써주시면 그게 급행료예요. 담당공무원을 믿고, 제출해야할 서류만 완벽하게 제출해주시면 되요. 저희 주무관들이 처리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서류가 미비한 사항은 보충을 해달라고 연락드리고, 그러다보면 일자가 밀리는 일이 많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믿으시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만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그게 진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급행료예요. 앞으로도 이번처럼 서류만 완벽히 준비하시면 처리 업무가 늦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마세요.

(주인공은 붉어진 얼굴이지만 감사하고 안심된 표정으로 듣는다.)

주인공 독백: 민원 신청자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급행료라는 말에 진심으로 신뢰가 갔다.

주인공: (약간의 미안한 마음과 깨달은 표정으로) 제가 나름 회사생활 8년 해서 사회생활경험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관: (환히 웃으며) 나중에 인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주세요. 그럼 저는 일이 밀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 (진심어린 표정으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무관과 인사하고 헤어지는 주인공. 돌아오는 길에서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건다.)

주인공: (힘찬 목소리로) 여보, 나 허가 서류 나왔어!

아내: (기쁜 목소리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요? 한 달은 걸린다는데?

주인공: (장난기있는 목소리로) 내가 진짜 급행료 좀 썼지!

(현관에 들어서는데 주인공을 아내가 반갑게 맞이한다.)

아내: 여보 정말 수고했어요! 그런데 급행료가 뭐예요?

주인공: 급행료 몰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게 치러야 하는 댓가 말야.

아내: (기분 좋지만 답답한 듯) 지금 퀴즈 낱말풀이해요? 빨리 속 시원하게 말해 봐요.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주인공.)

아내: (놀리듯) 당신도 참~쑥맥인줄 알았는데... 그런 꿈수도 부렸어요?

주인공: 그러게 말야. 급한 마음에 눈 한 번 딱 감고 하려고 했는데...내 체질이 아니더라구...

아내: 체질이 맞고 안맞고가 어디있어요? 옳지 않은 길은 가지도 말라 평소에 준혁이가 말썽피울 때마다 도덕선생님마냥 훈계해 놓구선...

주인공: (부끄러운 표정으로) 이거 할 말 없으니 선물이나 해야겠다. (아내에게 봉투를 내밀며) 엿다 받으세요. 사모님~

아내: (함박 웃음으로 봉투를 받으며) 어~그 주려던 뇌물이 내꺼 되는 건가요?

주인공: 이거 쥐도 좀 미안하네.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한 선물 하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아내: 알면 됐어요. (안쓰러운 듯) 가족 위한답시고 그동안 답답했을 당신 생각하니...

주인공: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급행료 받으셨으니 무엇을 빨리 주시려냐? (배를

쓰다듬으며) 배가 급 출출해지네~

아내: (장난스럽게) 저는 워낙 청렴한 사람이라 급행료 받고 후다닥 만든 패스트푸드를 차마 드릴수가 없네요. 천천히 연락드릴 테니 방안에 들어가서 기다려주세요.

(아내와 함께 활짝 웃는 주인공)

주인공 독백: 그 뒤로 나는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인허가 업무가 필요할 때, 내가 서류를 잘 준비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관공서에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주인공. 웃으며 관공서에서 걸어 나온다.)

주인공 독백: 진짜 급행료는 뒷주머니로 전해지는 돈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서류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업체에게 뒷돈을 먹이고 일감을 따내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었다. 확실히 맡은 일만 잘 처리하면 그런 뒷돈과 접대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일을 늘릴 수 있었다.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처리하면 그것이 급행료인 것이다.

(업체에게 뒷돈을 주는 어느 직원과 그것을 받는 거래 회사 상사의 모습. 반면에 열심히 분주하게 일처리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교차된다.)

주인공 독백: 청렴한 한 주무관이 나에게 준 진짜 급행료의 교훈은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일하다가 고개를 들고 희망찬 모습으로 환하게 웃는 주인공의 모습.)

끝.